
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지제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 교수

1. 머리말

의학 용어는 ‘의학이 숨 쉬는 공기(空氣)’라고 할 수 있다. 의학 용어는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전문 용어다. 의학 용어는 다른 전문 용어와 달리 일반인에게도 익숙하여 일반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 그뿐 아니라 두통, 복통, 발열, 감기, 설사, 충혈 등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고유의 의학 용어를 갖기를 희망하고 또 좋은 의학 용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아름답고 쓰기 쉬운 의학 용어를 갖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많은 의학자와 의료인들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거듭됐다. 의학 용어는 어원이 기본적으로 우리말이 아니고 외래어이기 때문이다. 한자어 문화권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부딪히고 있는 의학 용어 제정 및 순화 과정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2. 용어 정리

2.1. 의학 용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의학 용어란 우리말로 된 의학 용어를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의학 용어는 기본적으로 서양 의학 용어이다. 즉 우리나라 의학 용어는 서양 의학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내에 출판된 의학 용어 사전 혹은 의학 용어집은 모두 영어 용어가 표제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는 대응어 혹은 번역어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있었던 용어에 대한 논란도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대응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집중되어 왔다.

그렇다면 순수 우리말 의학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가? 인정하기 싫지만 전통 의학이나 한의학을 제외한 현대 의학적 입장에서 우리나라 의학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머리 아픔, 배 아픔, 구역질, 가려움, 화병 등을 우리말 의학 용어라고 주장한다면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고유어로 된 전문 의학 용어는 찾을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현대 의학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에 관한 개념이 없기로는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이들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고 서양 의학 용어에 대한 대응어를 만든 나라는 중국이 아닌 일본이다. 1800년 초반에 유럽 의학을 직수입한 일본은 서양 의학 용어의 기원이 된 그리스어와 라틴어 대신 한자어를 풀이하여 의학 용어를 만들었다. 그것은 한자어의 탁월한 조어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한자어 문화권 나라들이 쓰는 대부분의 기본 의학 용어들 중 일부를 예로 들면 ‘신경(神經)’은 ‘nerve’, ‘동맥(動脈)’은 ‘artery’, ‘세포(細胞)’는 ‘cell’의 대응어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신경’, ‘동맥’, ‘세포’는 한자가 없으면 개념 형성이 되지 않고 단지 철자의 나열에

불과하게 된다. 요컨대 우리말 전문 의학 용어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어 의학 용어에서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가지는 의미만큼 크다.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서양 의학을 직수입하지 못하고 일본을 통하여, 그것도 식민지 통치 기간에 집중적으로 도입했으며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자의 종주국인 중국도 전문 의학 용어에 관한 한 일본에서 만든 용어를 거의 모두 수용했다. 한자어를 기본으로 한 일본의 의학 용어가 그 정도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자어 문화권에서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자어 용어=일본식 용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이 한자어 문화권을 대표하여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을 국가 주도로 수행했고, 이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의학 용어를 쓸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2. 용어의 순화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뒤 우리 대한의학협회(현 대한의사협회)와 전문 학회는 일본식 한자어 용어에서 벗어나 이름답고 알기 쉬운 우리말 의학 용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많은 용어가 정비되었다. 정비 다음으로 해야 할 과제는 표준화 내지 통일화였다. 그런데 용어 정비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의학 용어 ‘순화’의 정확한 의미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순화’에 대한 한자는 아홉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純化, 醇化, 馴化’ 정도가 용어 정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純化’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함’이다. 둘째 ‘醇化’는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이다. 셋째 ‘馴化’는 ‘기후가 다른 지역에 옮겨진 생물이 점차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체질로 변하는 일’이다. 영어로는 각각 ‘purification’, ‘refinement’, ‘acclimatization’이다. 어떤 의미에서 용어의 정비에는 이상의 세 가지 ‘순화’가 모두 필요하다.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게 만들어 적응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특집에서의 ‘용어 순화’ 의미는 둘째 순화, 즉 ‘醇化’라 생각한다.

그러면 의학 용어에서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의학 용어 순화가 그동안 써 오던 한자어 용어를 토박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갑상선(甲狀腺)’을 ‘갑상샘’, ‘요추(腰椎)’를 ‘허리뼈’로 바꾸어 쓰는 것이 순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뼈’가 있다고 의학 용어의 ‘골(骨)’을 모두 뼈로 바꾸는 것이 용어를 ‘순수’하게 하는 것일까. 고유어가 순수한 것의 상징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醇化(refinement)’가 아니라 ‘純化(purification)’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언어의 순화와 전문 용어의 순화가 가지는 차이를 규명하고 전문 용어의 순화에 대해 확실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의학 용어를 포함한 전문 과학 용어를 다듬는 작업에 대해서는 ‘순화’보다는 ‘정비(整備)’나 ‘표준화(standardization)’가 더 적절한 용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다시 풀어 쓴다면 ‘용어를 다듬는 작업’이라고 하고 싶다.

3. 우리나라 의학 용어의 실태

3.1. 의학 용어의 종류

의학 용어에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술 용어(technical term), 즉 전문 용어와 일반인들과 더불어 사용하는 일반용어(general term)가 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콩팥’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로부터 알고 있는 ‘콩팥’은 우리 고유어이다. 《우리말큰사전》(어문각)에 ‘콩팥’은 ‘동물 체내의 오줌의 배설 작용을 맡은 기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는데, 핏속에서 오줌을 걸러서 방광으로 보낸다.’라고 설명되

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콩팥을 해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콩팥은 당연히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것으로 알고 지냈다. 한의학에 나오는 '신(腎)'도 현대 의학의 'kidney'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인들이 서양 의학에서의 해부학과 생리학의 개념을 가진 'kidney(ren, nephron)'에 대한 대응어로 '신장(腎臟)'이란 용어를 만들면서 비로소 비뇨 기관으로서의 '신장(腎臟)'이란 용어가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말 '신장'은 '腎臟'의 한글 표기일 뿐 한자를 곁들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단어일 수밖에 없다. 해방 후 일반인들이 동물에 사용하는 '콩팥'이란 단어가 해부학적으로 혹은 생리학적으로 일본인들이 만든 '신장(腎臟)'에 대응해서 사용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신장' 대신 '콩팥'을 쓰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는 '지라', '이자', '창자', '염통', '허파' 등이 있으며, 이들은 아직까지도 동물의 장기 이름으로 주로 쓰인다. 이들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사람에게 쓰던 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몇몇 한글 학자들은 이것이 비장(脾臟), 췌장(胰臟), 장(腸), 심장(心臟), 폐(肺)에 대한 순수 우리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내용이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렸다. 이와 같이 역사성을 가진 '신장(腎臟)'이라는 전문 용어를 '콩팥'이라는 일반용어로 바꾸는 것이 '순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들 용어는 처음부터 개념이 다르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대비될 수가 없다. 비슷한 예로 '췌장'의 우리말 용어가 '이자'일 수 없다. '췌장(胰臟)'에 대한 토박이 우리말은 없었다. 췌장은 '오장육부(五臟六腑)'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물에 쓰던 용어와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중국 사람이 쓰던 '胰子(이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학 관련 토박이말 일반용어들은 해당 구조나 질병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편의에 따라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학술 용어로 사용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

다. 따라서 쉬운 우리말로 의학 용어를 정비할 때는 비슷한 말이 있거나 우리 입에 익숙하다는 것 또는 우리 고유어라는 이유로 함부로 바꾸지 말고, 그 용어가 가지는 뜻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stem cell'은 워낙 '간세포(幹細胞)'로 많이 써 오다가 같은 음을 가진 '肝細胞(간세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줄기세포'라고 변경하였는데, 의외로 빨리 의학계와 일반인에게 수용되어 이제는 완전히 '간세포(幹細胞)'를 대체했다. 그렇다고 '뇌간(腦幹, brainstem)'을 '뇌줄기'로 변경하는 것은 정비의 원칙에 벗어난다.

3.2. 일반인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

의학 정보가 급속히 일반화되면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의학 지식은 놀라울 정도다. 그러나 의학 용어 정비에 일반인의 참여가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아무리 '순화' 대상 용어의 순화어를 만들어도 일반인이 계속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해당 용어는 순화할 수 없다. 의학계의 꾸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수(vermiform appendix)'를 '맹장'으로, '치핵(hemorrhoids)'을 '치질'로, '경추 추간판(cervical intervertebral disc)'을 '목 디스크' 등으로 부르는 것은 말리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당뇨병'을 '당뇨'로, '고혈압'을 '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 그렇다고 일반인이 흔히 쓰는 용어를 논문이나 교과서에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용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왜 그런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해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설명하는 '설명 용어'로서 활용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용도를 구별하여 사용하면 된다. '고관절'과 '엉덩 관절', '견갑골'과 '어깨뼈', '유행성 이하선염'과 '볼거리', '회백 척수염'과 '소아마비' 등도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3.3.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학 용어

전문 용어는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의학 용어는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다. 의학이 전문화되면서 용어도 점차 전문화되기 때문에 이들 용어를 일반용어로 바꿀 필요는 없다. 용어에 따라서는 같은 의사라도 해당 분야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다. 더 나아가서 이들 용어를 일반인들이 모두 알게 ‘순화’할 필요도 없다. 이 용어들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없으면 해당 전문 분야는 발전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일반인들도 공부하여 용어를 익히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토박이 우리말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aphasia’의 대응어인 ‘실어증(失語症)’을 토박이 우리말로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한자어를 사용하여 ‘언어상실증(言語喪失症)’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한자어 용어를 만드는 것이고 용어의 개념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비슷한 예로 ‘anencephaly(무뇌증)’를 ‘뇌 없음증’으로, ‘ataxia(운동실조)’를 ‘실조’란 말이 어렵다고 ‘조화 운동 못 함’으로 바꾸는 것, 혹은 ‘renal failure(신부전)’를 ‘콩팥 기능 상실증’으로 바꾸자는 주장 등도 같은 맥락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운동실조’나 ‘신부전’에 해당하는 한자인 ‘運動失調’나 ‘腎不全’을 이해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와 같이 아무 문제없이 용어의 뜻을 알고 쓸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장려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4. 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

4.1. 우리말 의학 용어의 역사

우리나라가 우리말 의학 용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쓰기 시작한 것은

조선 시대부터라고 생각한다. 1800년대 말 우리나라에 근대 의학이 도입되어 이에 관한 우리말 학술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31년 우리나라 학자들만 모여 조선의학회를 결성하고 《조선의보(朝鮮醫報)》를 창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최초의 서양 의학 학술지였다. 고유어와 한자어를 섞은 잡지였지만 사용된 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 의학 용어였다. 다만 조사, 접속사 등은 한글로 표기했다. 이때부터 의학 용어의 국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잡지의 발행 횟수가 늘면서 용어를 국어화하려는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체계적으로 용어를 제정하고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일제 강점기에 우리 의학 용어가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조국 광복과 더불어 각 분과 학회가 연차적으로 창설되면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의학 용어의 정비가 논의되었다. 의학 학술 단체 중에서 학술어 제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것은 안과학회로 1949년 7월이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과 전후의 혼란 등으로 1960년대까지 의학 용어에 관한 사업이 중단되었다.

4.2. 대한의사협회의 의학 용어집 발간과 연대별 정비 과정

4.2.1. 1977년

대한의학협회가 《의학 용어집》(제1집)을 발간하였다(11월 5일). 1976년 7월 대한의학협회에 의학 용어제정심의회(위원장 진중휘 서울의대 교수)가 설치되어 의학 용어의 심의, 개정, 신조, 정리, 그리고 통일을 꾀하도록 했다. 이 기구가 탄생한 지 1년여 만에 용어집이 나왔다. 이는 특히 의료 보험 수가와 관련하여 개원의들의 다급한 요망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각 학회로부터 수집한 용어 약 3만 5천 개 중에서 임상 용어로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약 2만 용어를 수록하였다.

4.2.2. 1978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기술용어제정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용어집》(제2집 의학 편)을 출간하였다(8월 30일). 1972년 8월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용어 제정 및 정화의 기본 방침 및 채택 범위가 결정되었다. 제1집은 의학을 제외한 과학기술용어집으로 1975년 7월에 발간되었고 총 53개 부문, 14만 용어가 수록되었다. 그다음에 의학 분야(제2집)를 위해 1975년 5월부터 편찬 및 전문위원회(편찬위원장 나세진 서울의대 교수)에서 의학의 각 분야 용어를 수집해 《과학기술용어집》 제1집과 중복되는 용어를 배제한 나머지 용어를 심의하여 《과학기술용어집》 제2집(의학 편)을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25개 부문, 13만 3천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4.2.3. 1983년

대한의학협회에서 영한·한영 《의학 용어집》(제2집)을 출간하였다(5월 30일). 용어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전종휘 서울의대 교수)는 1978년부터 제2집 작업을 시작하였다. 24개 학회에서 약 200명이 참가하였으며 각 학회에 심의를 위촉해서 수집한 1만 6천 용어와 1집에서 나온 2만여 용어를 합해서 약 4만 용어를 수록했다. 그리고 한영 편과 약자를 추가하였다.

4.2.4. 1992년

대한의학협회에서는 그동안 발간된 의학 용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의학 용어집》 제2집, 《과학기술용어집》(의학 편), 전문 분과 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 등을 총정리하여 13만 용어를 수록한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대한의학협회는 1983년 의학 용어집 제2집을 출판한 다음 곧이어 의학 용어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지재근 서울의대 교수)를 구성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의학 용어집 제3집을 편찬함에 있어, 각 전문가 집단(분과 학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용어 심의 과정을 전산화하

였다. 한편 한 가지 개념이나 영어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우리말 용어로 표기하지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용어를 각 전문 학술 분야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다듬는 작업을 해당 분과 학회가 담당토록 하고 의협 용어위원회는 조정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4.2.5. 2001년

새로 구성된 의협 용어위원회와 실무위원회(위원장 정인혁 연세의대 교수)는 1993년부터 각 전문 학회와 용어 세미나를 여는 한편 남북한 용어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하였다. 2001년 발간된 《의학 용어집》 제4집의 특징은 대한해부학회에서 발행한 해부학 용어를 대폭 수용하고 그중 상당수를 권장 용어로 채택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써 왔던 한자의 병기를 완전히 배제하였고, 인명이 들어 있는 용어도 거의 모두 삭제하였다. 또 제3집에서 부여했던 학문 분야명을 모두 삭제하였다. 한편 이전 판에 있던 용어를 새로 만든 용어로 대체하거나, 병기하더라도 새 용어를 앞에 뒀으로써 이를 권장 용어로 강조했고, 그동안 써 오던 많은 용어를 구식 용어라는 이유로 용어집에서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혁명적으로 용어집을 발간하자 의료인들이 의학 용어집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급기야는 의학 용어집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논문과 교과서를 작성하는 혼란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시험 등에서 《의학 용어집》 제4집을 적극 권장하여 혼란은 가중되었다.

4.2.6. 2006년

《의학 용어집》 제4집이 출간된 후 대폭 개정된 용어집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용어위원회(위원장 황건 인하의대 교수)에서는 제5집이 출간되기 전에 제4집에서 논란이 됐던 용어, 다빈도

용어 그리고 의사 시험에 이미 출제된 용어 약 11,000개를 선택하여 집중 심의하여 ‘필수 의학 용어집’을 발간하였다. 판수를 바꾸지 않고 발행하였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제4.2집의 성격 또는 제4집의 보완 판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의협의 용어 심의 기구가 용어심의위원회와 용어심의실 무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것을 용어위원회로 통합해, 용어위원회의 위원 10명이 2001년부터 거의 5년여에 걸쳐 개개 용어를 모두 축조심 의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그러나 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고, 공청회나 분과 학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분히 수용되지 못한 점이 유감이었다.

4.2.7. 2009년

이른바 ‘신용어’와 ‘구용어’의 논란 속에 기준에 익숙하게 써 오던 한자식 전문 용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문 용어와 일반용어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결국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쓸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강종명 한양대 교수)가 3년여에 걸쳐 발간한 《의학 용어집》 제5집은 제4집에서 삭제했던 기존 용어를 다시 올려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우리말 용어를 나열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골라 쓰게 하여 권장 용어의 개념을 없앴다.

4.2.8.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의학 용어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두 가지 용어가 있다. 첫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펴내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을 위한 지침서인 교과부 편수 자료이다. 여기에 의학 용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 과학 편의 생물(生物) 용어와 응용과학 편의 가정(家庭) 용어에 의학 용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에 등재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는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다. 2011년 1월부터 제6차 개정판(KCD-6)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요 질병의 용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동안 대한 의사협회에서는 위의 두 가지 국가 기관에서 공인하는 의학 용어 자료 구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표준 질병 분류)하거나 자문(교육부 편수 자료)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어도 있고, 또 여기에 등재된 용어 중에는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출판물에 등재된 의학 용어가 우리나라 공식 의학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용어위원회가 논란의 여지없이 정비한 용어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해부학 용어

pancreas: 췌장 → 췌장	liver: 간장 → 간
lung: 폐장 → 폐	brain: 뇌수 → 뇌
blast: 아세포 → 모세포	lymph node: 임파선 → 림프절
red blood cell: 붉은피톨 → 적혈구	
connective tissue: 결합 조직 → 결합 조직	

(2) 질병명

chancr: 경성하감(硬性下疳) → 굳은깨양
dysentery: 적리(赤痢) → 이질
hepatitis: 간장염 → 간염
pneumonia: 폐염 → 폐렴
malaria: 학질 → 말라리아
smallpox: 천연두(天然痘) → 두창(전문 용어), 마마(일반용어)
typhoid fever: 장질부사 → 장티푸스
urticaria: 담마진(蕁麻疹) → 두드러기

verruca vulgaris: 심상성우취 → 보통 사마귀

(3) 기타 의학 용어

puerperium: 산욕기 → 산후기 nausea: 오심(惡心) → 구역

infant: 유아 → 영아 embryo: 배자 → 배아

diet: 식이 → 식사, 음식 collagen: 아교질 → 콜라겐

amyloid: 유전분 → 아밀로이드 hyaline: 초자 → 유리

palpitation: 심계항진(心悸亢進) → 두근거림

perinatal period: 주산기(周産期) → 출산 전후기

5. 의학 용어의 바람직한 정비를 위한 제언

5.1. 용어 순화의 핵심

잘못되고 불합리한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찾아내서 바로잡는 것이 그동안 의협 용어위원회의 최대 임무였다. 즉 용어 개정 작업은 의학 용어의 토박이말화 작업이 아니었다. 한동안 의협 용어위원회가 그 개정 대상을 확대하여 억지로 한자어 용어의 토박이말화를 시도하였으나 의학과 의료계의 반발과 비판에 부딪혔다. 반발과 비판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용어가 ‘개정’이라기보다는 ‘우리말 뜻풀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의학 용어가 가지는 ‘전문 용어성’을 상실하였고, 실제로 쓰기에 오히려 불편할 뿐 아니라 그동안 익숙하게 써 오던 것을 지금 와서 바꾸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말, 즉 국어에는 고유어가 있고 외래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말 의학 용어의 거의 대부분은 외래어다. 외래어 중에서도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전문 외래어는 대부분 이미 한자어 용어로

번역돼 있다. 전문 기술 용어는 일반용어와 다르다. 보편타당성보다는 정확성과 함축성이 우선된다. 따라서 많은 경우 전문 용어는 순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의과 대학 1학년 학생이 1,000여 개의 기본 해부 용어를 뜻도 모르는 채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것과 같다. 영어권 학생들에게도 전문 의학 용어는 어렵다. 따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일반인에게 난해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풀어 쓰는 것은 설명어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설명어가 전문 학술 용어를 대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5.2. 의학 용어에서 한자의 중요성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들 언어의 기원인 라틴어를 필수로 배우는 것은 그것이 말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용어도 이렇거늘 전문 학술 용어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고유어만으로는 현대 과학을 기술하고 표현하는 데 원천적 한계가 있다. 즉 학술 용어에 관한 조어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히 우리 선조 시대부터 써 오던 한자어의 탁월한 조어력에 힘입어 의학 용어를 제정하고 터득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말과 한자어를 병용하여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trigeminal nerve’는 삼차 신경이다. ‘삼차(三叉)’를 한자로 아는 사람은 ‘trigeminal’의 뜻을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뜻을 모르거나 ‘삼차(三次)’로 잘못 아는 사람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할 것이다. 또 몸속의 빈 공간을 의미하는 ‘강(腔)’을 알면 ‘복강(腹腔, peritoneal cavity)’이나 ‘흉강(胸腔, thoracic cavity)’ 혹은 ‘사강(死腔, dead space)’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으나 한자를 모르면 ‘강’ 자가 어렵게 느껴지고 따라서 ‘배 안’이나 ‘가슴 안’ 혹은 ‘죽은 공간’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어도 의학 사전이나 용어집 수준에서는 한자로 표

기할 수 있는 우리말 의학 용어는 원칙적으로 모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 의학 논문에서도 혼동할 수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3. 외래어와 음차어

외래어와 외국어 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 우수한 한글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맞는 표기를 이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래어를 정함에 있어 일본은 구태여 한자어로 대응어를 만들 필요가 없거나 만들기가 어려운 것은 주저하지 않고 외래어로 받아들여 외래어임을 구별하기 위해 가타카나(片假名)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어 철자의 성격상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coffee'는 '커피'로 표기가 되지 않아 '고히(コーヒー)'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이것을 외래어로 정해 놓고 '커피'라고 발음을 할 줄 알면서도 '고히'로 통용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국은 어떤 어려운 용어나 발음이라도 예외 없이 중국식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한글의 우수성에 힘입어 외래어나 외국어를 원어의 발음에 아주 가깝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 받아들인 의학과 관련된 외래어가 독일식 의학 용어였기 때문에 초창기 외래어의 대부분은 독일어식 발음으로 표기했다. 예컨대 알레르기(allergy), 비타민(vitamin), 디아스타아제(diastase), 글리코겐(glycogen) 등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의학 용어로 굳어진 외래어이지만 이제 와서는 영어식 발음, 즉 앨러지, 바이타민, 다이어스테이스, 글라이코젠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들 용어가 올라 있다. 다시 말하면 의학 용어 표기에 있어 아직 우리의 외래어 표기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래어 표기는 다른 학술 용어와 같이 일단 정해지면 편의에 따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이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편 외국어의 한글 표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 그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apoptosis'에 대한 한글 표기는 '애포푸토시스'를 비롯해 '에이포토시스', '에이포프토우시스', '애포토시스' 등 수없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루빨리 하나로 표준화해야 한다. 특히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용례집을 대폭 확장 개편하여 분야별 외래어나 외국어 한글 표기 방식을 누구나 쉽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맺음말

우리 의학 용어의 표준화는 의학 교육의 백년대계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와의 충분한 토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의학이 과학의 한 분야로서 전체 과학 기술 용어와 연계되어야 한다. 시행착오와 혼란에 빠져 있는 현재의 우리말 의학 용어에서 전문 용어와 일반용어를 차별화하고 대표 용어를 선정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과학계가 힘을 모아 국립국어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전문 용어의 표준화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런 시대적 사명감을 절실하게 아로새겨 우리 의학계는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보편타당하고 의업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의학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명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못지 않게 의학에 관련된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건강하게 바로잡는 것이 의료계와 의학인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1),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大韓醫學協會(1977), 《醫學用語集》 제1집, 대한의학협회.
- 大韓醫學協會(1983), 《醫學用語集》 제2집, 동아출판사.
- 大韓醫學協會(1992), 《醫學用語集》 제3집, 아카데미아.
-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2001), 《의학 용어집》 제4집, 아카데미아.
- 대한의사협회(2009), 《의학 용어집》 제5집, 아카데미아.
- 한글학회(1991),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W. A. Newman Dorland(2003), *Dor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30th ed)*, Saunders.

